

## 민주당 4월 8~10일 제주지사 후보 경선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반영  
과반 득표자 없으면 상위 2명 4월 16~18일 결선  
오영훈 감산 20%·문대림 감산 25% 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일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도지사 본경선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 공천 심사 결과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근 국회의원 등 3명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당원 투표 100% 방식의 예비경선을 치르지 않고 바로 본경선에 나선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압축해 이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는 문대림 의원에게 적용된 감점 규정을 최고위원회가 면제하느냐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당헌을 개정해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한 경력이 있을 경우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득표 수의 최대 25%를 감산하기로 했다. 단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점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함께 도입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민주당합당이 고(故) 김재운 의원을 단수 공천해 경선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자 이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문 의원은 최고위원회가 공천 불복에 따른 감점 규정을 면제하길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



오영훈

문대림

위성근

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기존의 가감산대로 적용된다”고 밝혀 구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오영훈 지사도 감점을 안고 경선에 뛰어든다. 오 지사는 민주당이 실시한 선출직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돼 경선에서 득표 수의 20%를 감산당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오 지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에서 선거 출마 선언

을 할 예정으로, 폐널티에 굴하지 않고 경선에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성근 의원은 유일하게 감점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편 본경선에서 격돌하는 민주당 3인방은 모두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학생회 활동을 함께했으며 나란히 제8대, 제9대 제주도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함께 성장해온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도, ASF 차단 방역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을 원료로 사용한 타 지역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동물성 혈장·혈분 함유 사료를 폐기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양돈농가 대상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기자



목 축이는 참새들 11일 제주시 애월읍 공한지 물웅덩이에 목마른 참새들이 찾아와 물을 축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 오는 6월 개관... 3면 / 중동발 미사일 공포 속 카타르 탈출기... 5면

### 알림

#### 챗 GPT 인공지능 지도사 · 두뇌 건강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자격 과정

제주 최초 '두뇌건강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자격 및 AI 지도 강사 인증 과정'

- 주 관: 국제미래학회, 한라일보,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 대 상: AI 강사 역량 함양하고 두뇌건강 지도사 및 인공지능 지도사로 활동하실분
- 일 시: 3월 21일(토) 오전 8시30분 ~ 오후 6시30분(정원: 수강료 입금 선착순 20명)
- 장 소: 한라일보 본사 3층 교육장
- 문의 및 접수: 한라일보 총무부 064)750-2530
- 비 용: 45만원 (1급 자격증 2개 및 인증서, 강의 교재, 수강료, 다과 포함)
- 준비물: 노트북, 노트북용 이어폰,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
- 핵심1: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자격증' 제공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국제미래학회)
- 핵심2: '뇌건강 지도사 1급 자격증' 제공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교육문화예술진흥원, 실행:국제미래학회)
- 핵심3: 인공지능지도사협회 이사장 명의 "AI 지도 강사" 인증서 제공

#### 교수진 소개

-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이사장
- 심현수 국제미래학회 AI교육위원장 /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원장
- 차경환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교육부 부장
- 진성원 AI 마케터연구소 상무 대표 /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제주부장

####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08:30-09:00	신나는 두뇌 건강 운동 실전 교실 1	차경환
09:00-09:30	챗GPT, 제미나이 기입 및 사용법 지도하기	안종배
09:30-09:50	챗GPT 인공지능 활용 그림과 시화 작품 만들기	안종배
10:00-10:50	인공지능 활용 로고, 포스터 홍보물 제작 지도하기	진성원
11:00-11:20	신나는 두뇌 건강 운동 실전 교실 2	차경환
11:20-12:00	인공지능 활용 작사, 작곡 지도하기	차경환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인공지능 활용 자신 아바타 영상 만들기 지도	안종배
14:00-14:30	인공지능 활용 주제 발표 PPT 제작 지도하기	심현수
14:30-14:50	신나는 두뇌 건강 운동 실전 교실 3	차경환
15:00-15:30	인공지능 활용 웹툰 제작 지도하기	심현수
15:30-16:20	인공지능 활용 동영상 만들기 지도하기	안종배
16:30-17:30	인공지능 활용 에니메이션 제작 및 지도하기	심현수
17:40-18:00	신나는 두뇌 건강 운동 실전 교실 4	차경환
18:10-18:30	두뇌건강, 인공지능 지도사 1급 자격증 및 AI지도강사 인증서 수여식 및 기념 촬영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 한라일보 |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

### 도 '향토음식' 보존·세계화 추진

올해 12억 투입 콘텐츠 육성

제주 향토음식 보존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2026년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향토음식을 지역 미식 콘텐츠로 육성해 식품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도 정비와 체험 프로그램 확대, 미디어 홍보 및 미식체험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도는 명인·장인·전수자 심사 규정을 명문화하고 단계별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에서는 위생등급제 획득 업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정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현재 제주에는 향토음식 명인 5명(농림축산식품부 지정 3명·도 지정 2명)과 장인 7명, 향토음식점 62곳이 지정돼 있다.

한편 오는 6월 도내 음식점 200곳이 참여하는 '제주미식가주간'이 운영된다. 김채원기자

2026. 3. 18.(수) - 20.(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 제주물세계포럼

064-748-1040

사전등록

#### 기조강연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Ph.D. Ian Overton**  
국제수자원관리연구소(IWMI)

#### 프로그램

이번 포럼에서만 공개되는  
**어리목 Y계곡 이끼폭포와  
제주 청정 수자원 특별 탐방**

※ 선착순 현장 접수

#### 홍보부스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30여개의 물산업  
홍보부스 운영**

#### 작가전시

홍진숙 작가 특별전

물의 기억,  
제주의 시간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후원 기후에너지지하정부

후원 국립물관리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후원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후원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후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후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ydrogeologists

후원 KOSSG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